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허호준*

<차례>

- I. 서론
- II. 성장과 서울 유학시기 활동
- III. 일본 유학시기 교류활동과 사회인식의 형성
- IV. 일본 유학시기 현실관과 조직활동
- V. 결론

국문요약

김명식은 일제강점기 제주 최초의 언론인이었으며, 조선에 사회주의 이론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중요한 초기 이론가 가운데 한명이었다. 그는 조직운동가와 사회비평가로서 당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술한 필화와 논전의 주인공이었다.

김명식은 1915-1918년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다녔다. 유년 시절 제주에서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을 경험한 김명식의 일본 유학은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의 사상적 흐름을 주도한 인사들과 교류하고, 조직활동에 발을 디딘 계기가 됐다. 일본 유학시기 추송 장덕준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장덕준을 통해 그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을 자각했다.

그의 일본 유학 시절 조직활동은 주로 조선유학생학우회, 조선기독교청년회, 신아동맹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선유학생학우회 간사부장과 회장을, 조선

* 제주4·3연구소 연구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기독교청년회 간부를 맡아 활동하는가 하면 초기 사회주의 계열의 비밀결사인 신아동맹당에 참여해 자금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학지광』에 기고한 그의 글들은 그의 사회인식과 조선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쓰여졌다. 그는 유학생들에게 조선의 사회현실에 뛰어들어 그들과 같이 호흡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과학만능주의, 법률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의 '3대 신사조'를 거론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도덕의 향상과 경제의 진보를 촉구했다.

그의 유학생활동의 사회인식과 활동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평생동안 활발한 문필활동을 벌이고, 조직활동을 하는 토대가 됐다.

주제어 : 김명식, 장덕준, 학지광, 조선유학생학우회, 신아동맹당

I. 서론

송산 김명식(1891-1943)은 일제강점기 제주도 최초의 언론인이었으며, 조선에 사회주의 이론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중요한 초기 이론가 가운데 한명이었다. 그는 또한 조직운동가였으며, 사회비평가로서 당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술한 필화와 논전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일본 유학생활동은 이러한 문필활동과 조직활동의 자양분이 됐다. 그는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다녔다.

그는 일본 유학생활동을 마친 뒤 『동아일보』와 『신생활』을 중심으로 집필활동을 시작해 각종 매체에 문예비평, 국제정치경제, 사상, 만주문제, 교육, 종교, 여성, 정치, 조선경제, 사회운동, 주역, 조선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 정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글은 150여편에 이르고 있으나, 무기명으로 게재한 논설이나 기사 등을 합치면 그의 집필활동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대의 문필가들이 그러하듯이 한문에 조예가 깊었던 그의 글은 동서 고금을 넘나들었고, 조직운동가로서의 활동은 1920년대 초 조선이 좁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에 대한 당대의 평가들은 그가 어떤 인물 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자 재판’(동아일보, 1922. 2. 27.)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조선 사상계의 거물’¹⁾이자 ‘치열한 배일사상을 가진 인물’이었으며,²⁾ ‘일세의 웅변객’이었고(『삼천리』 제3호, 1929: 7쪽), ‘당대 최고봉의 논객’이었다(『삼천리』 제8권 제1호, 1936: 36쪽). 그는 또 ‘조선의 맑스주의자’이자 ‘이론전선의 전초에서 적에게 맹탄을 보낼 투사의 멤버’였으며, 그의 문장은 ‘노련 해박’하고, 식민지 조선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박일형, 1932: 12-13쪽). 그는 ‘사랑’을 평생 신조로 삼고, ‘인도(人道)를 주장하고, ‘계급’을 배척하고 싶어했던 인물이었다(『개벽』 제12호, 1921: 98쪽).

김명식에 대한 글은 그가 제주 출신 언론인 또는 사회주의 활동가로서 항일투쟁을 벌였고, 사회주의 사상가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등 언론에 단편적으로 소개되는데 그쳤다(제주신보, 1972. 8. 19.; 박노자, 2005). 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조금씩 이뤄졌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히는 생애사 연구(허호준, 1993; 박종린, 1999), 일찍부터 알려진 『동아일보』 창간호에 쓴 시와 춘원 이광수와 벌였던 논쟁 연구(김병택, 2010), 일제강점기 윤양 김윤식의 사회장 여부를 놓고 벌어진 조선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세력 재판 연구 등이 있다(박종린, 2000).³⁾

1)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 경찰서에 근무한 手錢善貞의 언급. 김시용, 안요검에 대한 신좌소비조합운동 관련 판결문, 1942. 8. 13.(제주도, 1996: 777쪽).

2) 『왜정시대인물사료』 제3권(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검색).

한국의 사회주의운동 또는 민족해방운동에 끼친 다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김명식에 대한 연구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전향한 친일 이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그가 일제강점기 저항적, 문제의식적 지식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1920년대 초부터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인 1940년대 초까지 숭한 집필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상, 운동, 정치, 역사, 경제 인식 등을 설파한 것을 보면 부분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물론 말년의 그의 글에는 친일적 성격의 내용이 들어 있고,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비판받아야 한다.⁵⁾

본 연구는 송산 김명식의 생애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가 사회주의 사상가로 활동하는 계기가 된 일본 유학시절 그의 사회인식과 활동을 조명하는데 있다.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자 가운데 한명인 김명식은 일본 유학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훗날 논설반 기자로 활동한 『동아일보』, 주필로 활동한 『신생활』을 통해 조선사회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했다.

이 글에서는 그가 일제강점기 언론인·사상가·운동가로서 평생을 일관한 뿌리가 되는 일본 유학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가 일본 유학시절 유학생들이 기관지였던 『학지광』에 실은

3) 박종린은 이 연구에서 김윤식 사회장에 대한 김명식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4) 서영인(2008), 『일제말기 전향자들의 시국인식과 문화론 - 김명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2집,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1-22쪽; 홍종욱(2009. 10.), 『1930年代にける植民地 朝鮮人の思想的摸索 - 金明植の現實認識と轉向を中心に』, 『朝鮮史研究論文集』 No.47, 朝鮮史研究會, 東京: 録蔭書房, 159-186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홍종욱은 『중일전쟁기(1937-1941)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그 논리』,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 등을 통해 사회주의자들의 전향논리 검토의 주요 인물로 김명식을 놓고 있다.

5) 그가 말년에 남긴 대표적인 친일 글은 창씨개명의 당위성에 관한 글이지만, 그 자신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김명식, 1940: 43-44쪽). 김명식의 친일적 글에 대한 분석은 훗날 시도하려 한다.

논문과 각종 기고문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II. 성장과 서울 유학시기 활동

1. 김명식의 유년시절과 제주사회

김명식은 1891년 9월 26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서 정의현감 김문주(金汶株)⁶⁾와 어머니 송권숙(宋權淑) 사이의 4남 2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다. 그의 어릴 때 이름은 경덕(慶德)이었다. 본관은 김해 김씨로 조천이동파(朝天梨洞派)다. 김명식 위로는 후식(金厚植: 제주군 주사 역임), 형식(溍植: 조천면장 역임), 재식(在植) 등 3형제가 있었다.

예로부터 조천은 정치가와 학자 등 중앙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유배인과 내륙을 오가는 사람들, 각종 상선들이 드나드는 제주의 관문이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제주읍 산지향과 더불어 기미가요마루(君代丸) 등 일본과 제주를 잇는 정기여객선이 들렀던 교통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 이러한 사회적·자연적 환경으로 조천에서는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견줘 서울과 일본 등지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김명식은 제주사회의 격동기에 유년시절을 보냈다. 제주지역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로 민심이 이반돼 이에 항의하는 민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일제의 조선 강탈도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8살 때인 1898년 2월 제주목사 이병휘의 폭정에 항거해 일어난

6) 농은(農隱) 김문주(1859-1935)는 고종 28년인 1891년부터 1894년까지 정의현감을 지냈다. 오문복, 『해제』(김문주, 2004: 6-7쪽).

‘방성칠란’을 경험했다. 방성칠을 장두로 하는 민군은 제주읍성은 물론 조천까지 습격해 권세를 누리고 있던 제주군수 김희주(金熙胄) 등 김씨 일가의 여러 집들을 불태웠다(제주도, 1993: 1014-1017쪽). 김명식의 숙조부인 김응빈·김응배의 가옥들은 민군에게 파괴됐지만 김명식의 조부 김응전과 부친 김문주는 평소 민심을 얻어 오히려 민군들의 보호를 받았다(김윤식, 1898; 김윤식 2010: 67-68쪽).

김명식은 이러한 구한말 제주의 혼란상을 경험하고, 중앙정부에서 유배온 명망가들을 직접 보면서 자랐다. 구한말 제주에 유배왔던 운양 김윤식은 김명식의 집안과 친하게 지냈다. 방성칠란이 일어났을 때는 김윤식이 김명식의 조부인 김응전의 집으로 피신해 김응전과 김문주 등을 만나기도 했다. 김윤식이 1898년 3월 19일 조천을 떠날 때도 이들 부자가 김응전의 부자인 김응전과 김문주, 그리고 손자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명식 또는 그의 형제들도 김윤식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⁷⁾

그가 11살 되던 해인 1901년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봉세관 강봉헌의 작폐와 일부 천주교도들의 횡포에 맞선 이재수란이 일어났을 때도 민군들이 보호했을 정도로 김응전과 김문주는 평소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웠다. 4년 뒤 김문주가 1905년 겨울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을사년 겨울에 서울 소식을 듣고’(乙巳冬聞京報)라는 시는 이런 김문주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남겨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다급한 때를 당하여
어려운 나라 길을 느릿느릿하다 하겠는데

7) 김윤식은 김명식의 조부 김응전에 대해 “나이는 67세, 나이가 많고 덕이 있으며, 문장도 알고 얼굴 가득히 복 있는 기상”이라고 평가했다(김윤식, 2010: 67-71쪽).

어찌하여 열사들은 충절을 다하지 않으며
 헛되이 간신들만 가지녕쿨 자라듯하는가
 북쪽을 정벌하려 할 때 제갈량은 출사표를 찬탄했는데
 동쪽을 정벌해야 할 때는 공연히 육유시만 읊고 있구나
 오직 한 사람 신유수만이
 우리 조정을 위하여 죽음을 기약했네.⁸⁾

김명식은 1902년부터 1906년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1910년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이 사이 그는 1905년께 구좌면 김녕리 김희서와 결혼했다.

일본의 조선 강탈이 노골화되던 시기인 1908년 정월 초하루 김문주는 자식들에게 행동을 바로 하고 처신을 잘 하라는 뜻을 담고 시를 썼다.

맑은 창가에 빨간 해 구르는 빛 환하다
 밝은 기운 등등하고 어두운 기운 사라진다
 동쪽 나라에 봄을 맞아 성덕을 노래하고
 어머님 회갑이라 색동옷 춤추었네
 벼슬길에서 돌아온 도연명 현명했고
 옛사람 생각하니 백옥이 슬퍼지네
 어리석은 많은 자식들 행동 두렵기만
 지금부터 너희들 생각을 바로 가져라.⁹⁾

8) “當此存亡危急時 艱難國步亦云遲 那無烈士盡忠節 徒有奸臣滋蔓枝 北伐應嘆諸葛表 東征空詠陸遊詩 唯聞一介申留守 爲我朝廷死以期”(김문주, 2004: 8쪽).

9) “戊申元日敢構拙辭欲自警而亦戒諸子云耳時餘年五十也
 晴窓紅日轉光輝 陽氣騰騰陰氣微
 東國迎春歌聖德 北堂獻壽舞斑衣
 歸來已覺淵明是 追憶先知伯玉悲
 愚者雖多三恐懼 從今爾輩慎樞機”(김문주, 2004: 9-10쪽).

자식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당부하는 것을 보면 이 시기 이미 김명식 형제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08년 대한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다. 대한협회는 교육과 산업발전을 통해 국력 배양을 꾀하던 대한자강회가 일제 통감부에 의해 강제해산되자 그 후신으로 남궁억·오세창·윤효정·장지연 등이 1907년 11월 전국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이 단체는 교육의 보급, 산업의 개발, 생명재산의 보호, 행정제도의 개선, 관민폐습의 교정, 근면저축의 실행, 권리 의무 책임 복종의 사상 고취를 강령으로 하고 있다(『대한협회회보』 제1호, 1908: 1-2쪽). 1908년 7월 발행된 『대한협회회보』에는 김명식이 동향 출신의 김문준과 함께 대한협회 제주지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와 있다. 회장은 그의 친척인 김희주로 돼 있다(『대한협회회보』 제4호, 1908: 69쪽).

2. 서울 유학시기 활동

1910년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그해 서울 유학길에 올랐다. 1911년 4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졸업을 하지 못하고, 1912년 학교를 그만뒀다.¹⁰⁾ 그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반일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¹⁾ 그는 동향 출신의 죽암 고순흙, 목우 김문준 등과

10) 『왜정시대인물사료』 제3권(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검색).

11) 조천 출신으로 추정되는 김려환은 김명식이 제주도 조천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해 고향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1908년 한성고등학교(서울)에 입학해 공부하다가 한일 강제합병의 비보를 듣고 졸업시기가 멀지 않지만 애국적 학생동지들과 함께 일본군과 맹렬한 투쟁을 했다고 말했다(김려환의 자료제공, 주간신문 『독립』, 1946. 5. 15). 이 신문은 1943년 9월 5일 창간돼 매주 수요일 발행됐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됐다(국가보훈처 사이트검색 <http://e-gonghun.mpva.go.kr>). 경기고등학교의 전신인 관립 한성고등학교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지속됐으며, 1911년 11월 1일부터는 제1차 조선교육령의 공포로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졸업생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경기고등학교 동창회, 『경기90년사』, 1990:

많은 교분을 쌓았다. 특히 훗날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운동을 지도한 김문준과는 매우 돈독한 관계였다. 김명식은 “죽마교우로서 절치간”이며, “그의 죽음과 같이 나에게 큰 타격은 없었고, 저의 추도회 때에 나온 저의 영(靈)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컷 울었다”고 할 정도였다. 그는 스스로 김문준과의 관계에 대해 “군(김문준 - 필자)은 나를 믿고 나는 군을 사랑했다”, “군을 잃은 나의 불행은 귀머거리가 된 불행보다 큰 것”, “풍치는 사나운 바람이 날개를 꺾어버리면 아무런 기능도 발휘치 못하듯이 군이 가지 않았으면 나도 도는 날이 있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군의 부친은 일직 도라가시고 여동생 2인과 함께 편모의 총애를 받고 성장하였는데 모당(母堂)의 학성(學誠)이 장(壯)한 것이 잇서 군으로 하여 꿈 농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케 하고 또 농림학교에까지 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원래 빈한(貧寒)한 사람의 일이라 농림학교는 마치지 못하고 도라왔는데 이때 군의 심서(心緒)는 심히 위적(惛積)하였다. 어느날 군의 가정에 불평(不平)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쏘차가서 군을 몰고 나와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엇지 못하는 것이요, 또다른 문제로 말하면 ‘유자칠인(有子七人), 막위기모(莫慰其母)’라는 고시(古詩)도 잇스니 너무 상심치 말라고 서로 붓잡고 운 일이 있다. 그리고 연전(年前) 경성에 잇을 때에는 군은 내의 악필을 노상 민연(憫然)히 생각하여 원고를 써 노흐면 내의 청구도 업시 군은 그 능필(能筆)로 정서(精書)해 주었다(김명식, 1936).

김문준은 1936년 5월 22일 오사카 히가시나리(東城)구 동소교북지정 3정목 9번지 4호에서 세상을 떠났다(동아일보, 1936. 5. 24.; 조선중앙일

보, 1936. 5. 25.). 김명식은 1936년 오사카에서 열린 그의 추도회 때 추도사를 읽었다가 일본 경찰에 연행된 뒤 강제 귀향조처됐다(김명식, 1938a: 45쪽).

그는 서울 유학생할 시절 제주 출신 유학생들을 위해 ‘제주학생친목회’를 만들었다. 1910년 7월 조직된 이 친목회는 김문희(金文熙)와 김명식 등 2명이 발기해 1000환씩 출자해 만든 것이다. 친목회의 목적은 유학중 학비가 부족해 학업을 중단하는 유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서였다(대한매일신보, 1910. 7. 5.; 황성신문, 1910. 7. 5.). 학비 부족으로 유학생할을 하지 못하는 제주 출신 학생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을 보면 당시 제주도 출신 서울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이 친목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서울에 유학한 제주 출신들의 친목회를 조직한 것은 이 모임이 처음으로 추정된다.

김명식의 큰 조카 며느리 황정이는 그가 형제 가운데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고 기억한다.

김명식 선생이 부인을 고향에 둔 채 혼자만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서 살아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부인 생각은 했던 모양이에요. 부인보고 혼자만 있으면 고생한다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하거나 방학 때 내려오면 친정집이 있는 김녕리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고 해요. 집안 식구 불쌍히 여기고 성격이 과묵한데다 참 순한 사람이었지요. 남에게 굶은 말도 할 줄 모르는 어른이었어요.¹²⁾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 김명식은 일본 유학을 통해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을 굳건히 하고 평생의 활동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12) 황정이 인터뷰. 1993. 9. 13.

Ⅲ. 일본 유학시기 교류활동과 사회인식의 형성

1. 일본 유학과 교류활동

1910년대 일본 유학생의 85%가 도쿄에 유학했고, 사립학교에 적을 둔 남성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주로 정치, 법률, 경제 분야를 전공해 국권회복을 위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다(류시현, 1999: 288쪽). 김명식도 이러한 길을 밟았다. 그는 24살이 되는 1915년 9월 13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들어갔다(학적부). 부친이 현감을 지내기는 했지만 신문배달과 막노동 등을 하면서 학업을 할 정도로,¹³⁾ 그의 유학생생활은 ‘고심참담’한 나날들이었다(동아일보, 1922. 12. 27.). 김명식이 일본 유학을 갔던 1915년의 일본 유학생수는 342명으로, 1913년 502명에 견줘 크게 줄어들어 들 때였다.¹⁴⁾

유학생의 활동은 유학 대상지에서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의 활동과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류시현, 1999: 282쪽). 그런 점에서 김명식의 일본 유학생활동도 그가 훗날 평생을 일관한 문필활동과 조직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김명식이 일본 유학생생활 중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는 추송(秋松) 장덕준이었다.¹⁵⁾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장덕준과의 교류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장덕준

13) 황정이 인터뷰.

14) 이처럼 유학생수가 줄어든 데 대해 『학지광』은 경제공황과 세계대전으로 인해 개인주의와 중금주의가 팽창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학지광』 제6호, 1915: 17쪽).

15) 그는 1892년 6월 29일 황해도 재령군 하호면에서 출생했다. 1889년부터 1898년까지 한학을 전공하고, 재령기독교학교(1907-1909), 재령명신중학교(1909-1911)를 나왔다. 그 뒤 명신중학교 교원(1911-1912)과 평양일일신문사 조선문 신문부 주간(1914-1915)으로 활동했다. 이어 일본 도쿄로 건너가 조선기독교청년회 간사(1917-1918)로 활동했다. 조선으로 돌아와 1920년 1월 동아일보사 창립에 참여하고, 1920년 4월 1일 논설반 기자로 선임됐다(동아일보, 1930. 4. 3.).

은 설산(雪山) 장덕수의 형이다.¹⁶⁾ 장덕준은 “열성과 동정이 풍부해 형제의 일이라면 시간상, 금전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다(『기독청년』 제9호, 1918: 1쪽).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는 바람에 장덕수와 동창이었던 김명식은 장덕수의 하숙집으로 자주 놀러가다가 그의 형 장덕준을 만나게 됐다. 장덕준은 어느 날 김명식에게 평양에서 신문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에 김명식은 “이제 조선에서 신문이 되겠소?”하면서 웃어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장덕준은 인생의 진가(眞價), 인격의 존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함에 물질적 쾌락에 동경하여 인생의 진가를 부지(不知)하고, 인격의 존엄을 불각(不覺)하여 고식투안(姑息偷安)의 현실생활로 만족하며 기계적 생활과 노예적 생활에 감복함이 우리 반도(半島) 사회의 일반 요구이며, 일반 희망일 뿐 아니라 우리 다수 청년의 사업이니 이것이 분(憤)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애달못지 안이한가”며 물질의 압박과 기타 모든 것의 폐해를 벗어나기 위해 진실한 정신과 충실한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여겼다(추송생, 1915: 58-60쪽).

길지 않은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많은 집필활동과 조직활동을 했던 그가 조선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된 데는 장덕준과 교류가 결정적이었다. 장덕준은 김명식에게 낙후된 조선 상공업 발전의 절대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명식은 그의 입장에 동조했다. 김명식은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본 유학을 했으나 자본문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장덕준

16) 그는 1920년 6월 흥범도 부대와 9월 김좌진 부대가 일본군에 타격을 주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10월부터 간도의 조선인 동포들을 무차별 학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동아일보』가 정간 중이었지만, 이를 취재하러 만주로 갔다가 훈춘에서 제1신을 보낸 뒤 행방불명됐다(정진석, 1995: 194쪽).

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시한다. 의기투합한 이들은 유학생들에게 자주 조선의 상공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김명식, 1938b: 69쪽).

김명식은 조선의 자본문명에 대한 이해는 당대의 도쿄 유학생시대로부터 출발했다고 본다. 그는 당시 조선인들이 구주대전(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정치 및 경제상황을 통해 자본문명을 이해한 측면도 있으나,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극소수였다고 평가했다.

장덕준과 함께 유학생들을 상대로 조선의 상공업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나갔으며, 그 결과 학업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간 많은 유학생들이 상공업 방면으로 나갔다고 그는 평가했다. 노동문제에 대한 김명식의 인식도 장덕준과의 교류가 밑바탕이 됐다. 그는 장덕준의 권유로 조선인 노동자를 만나고 노동자의 현실을 깨닫게 됐으며, 이 만남은 김명식의 이후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쿄 있을 때 어느 날 저는 하치오지(八王子) 제사공장(製絲工場)에 조선 노동자가 많이 와 있다 하니 가보지 않겠느냐고 유인해 동행했는데, 그들에게 대한 저의 친절한 어조와 행동은 감격치 아니할 수 없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명식은 “그것이 유학생계의 처음 일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후 나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없지 아니하였다”고 말해 자신의 사회인식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김명식, 1938b: 69쪽).

장덕준은 폐결핵으로 가나가와현 치가사키(茅ヶ崎市) 남호원(南湖院)에 요양했다가 1918년 3월 퇴원했는데, 요양 중일 때 위로차 그를 찾아갈 정도로 둘의 관계는 돈독했다(『학지광』 제17호, 1918: 79쪽; 김명식, 1938b: 70쪽).

김명식도 몸이 허약했던 듯하다. 그는 유학생할 중 신병으로 1917년 12월 중순 귀향해 요양한 뒤 1918년 4월 복학해(『학지광』 제15호, 1918:

82쪽; 『학지광』 제17호, 1918: 80쪽) 학교를 다녔으며, 같은 해 7월 7일 졸업했다(학적부).

2. 일본 유학과 사회인식의 형성

김명식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1910년대 중반은 일본 사상계에 ‘초기 사회주의’가 수용되던 시기였다.¹⁷⁾ 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류와 조직활동을 통해 사회인식을 형성해 나갔다. 그의 사회인식은 조선인 유학생들의 기관지인 『학지광』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단편적이거나 알 수 있다. 그가 『학지광』에 기고한 것은 1917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 일본 유학생들은 조선사회의 선도자적 위치를 자각하고 있었고, 유학생 기관지인 『학지광』은 유학생들의 현실인식과 자각이 들어있었다. 이 때문에 『학지광』은 학생들의 항일 선전지로 자주 발매 및 배포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¹⁸⁾ 이러한 압수와 배포금지 때문에 김명식이 어느 정도의 글을 『학지광』에 기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학지광』에는 한시(漢詩) 2편¹⁹⁾과 졸업생들에 대한 당부의 글 1편, 논문 1편 등 모두 4편이 남아 있다.

17) 일본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발생했던 여러 사회문제를 비판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던 ‘초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가 초래한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을 지향했다 (류시현, 1997).

18) 『학지광』은 1914년 4월 창간해 1930년 4월 중단될 때까지 통권 29호가 발행됐다. 이 잡지는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의 논문·기행·수필·시·회곡·소설·학우회 소식·동정 등을 게재한 종합잡지였다. 창간 당시에 격월간을 목표로 했으나 연 2-4회 발행되는데 그쳤다. 발행기간은 16년이었으나 잦은 발매금지 처분과 압수 등으로 29호 밖에 발행되지 못했다.

19) 『학지광』 제13호(1917. 7), 80쪽에 ‘춘일우음’, 『학지광』 제17호(1918. 8), 77쪽에 ‘별강호유감’의 한시 2편이 실려 있다.

본 글에서는 후자의 2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학지광』 제13호(1917. 7.)에 기고한 ‘안거연래’(雁去鸞來)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그는 “기러기떼가 추위에 놀라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갈 때 잃은 벼를 찾으려고 푸른 하늘에 대고 슬피 울어, 타국에서 나그네가 거처하는 방 안에 근심이 가득찬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돕더니 벌써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 눈이 쌓였다”며 식민지 조선의 청년으로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빗대었다(김명식, 1917a: 30쪽).

그러면서 그는 졸업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먼저 ‘기뻐하고 구(求)하라’고 당부한다. 비관하면 생이 끊어지고, 낙관에서만 생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관만 품고 앞날의 절망을 슬퍼해 우리의 모든 일이 이뤄지지 못할 것을 속단해 지리산 중에서 스스로 머리를 깎던 옛 양반이나 벼를 삼고자 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곤란도 없고, 문을 닫고 집안에 돌아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편안하겠지만 문을 열고 머리를 들어 장제방초(長堤芳草)를 볼 때 우리의 왕손은 어디 갔는가”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한번 나아가 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을까”하고 묻는다(김명식, 1917a: 31쪽).

그의 이런 말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먼저 조선민중들을 계몽할 것을 유학생들에게 촉구하는 것이었다.

제군이여. 절망치 말라. 우리의 일이 확실히 일울 것을 믿고 낙관하라. 큰 이상과 큰 야심을 가지라. 만흔 희망과 만흔 경륜을 시우라. 비록 광적(光的)의 빛을 차차가는 경로가 험악하지만은 상설(霜雪)을 범하고 형극(荊棘)을 밟으면서 산길을 광활하게 개척하고 가을풀이 만연한 냇 물을 화려하게 소제(掃除)하여라. 나아가는 길에 만흔 곤란은 우리의 뜻을 더욱 굳게 하는 단아봉(鍛冶棒)이오, 만흔 악마는 우리의 태만을 자극(刺激)하는 큰 목탁이니라(김명식, 1917a: 31쪽).

이상과 야심을 가지고 험난한 길이지만 개척할 것을 당부하는 그의 글에서 식민지 조선 청년의 기개가 드러난다. 개척하는 길에 만나는 곤란과 도처에서 맞닥뜨리는 장애물들은 오히려 심신을 더욱 단련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명식의 인식은 같은 시기 일본 유학생황을 한 장덕수의 글에도 묻어난다. 장덕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기가 아니라. 우리는 도야지가 아니로다.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천지에 대하여 자랑하는 자각(自覺)있는 사람이라. … 생물의 본능되는 바 정욕을 통제하는 이성(理性) 있는 우리는 이로써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니 혹은 영성(靈性)의 명을 의하야 본능을 무시하고, 정의(正義) 공도(公道)를 체현코져 사(死)함을 질거워할 썩도 잇을 것이오 … 조선청년이여 죽었는가 이겼는가, 너희의 강산은 너희의 의지를 실현할 곳이 아니며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우주적 경륜을 행할 곳이 아닌가?”²⁰⁾라며 조선 청년의 책임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김명식의 시각도 이 글에서 보인다. 그는 “홍수가 비록 9년이 계속되더라도 반드시 맑게 갠 하늘이 있을 것이요, 큰 가뭄이 비록 7년이 이어져도 또한 반드시 구름비가 있을 것이니 꽃에 십일홍이 있지 않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설파했다(김명식, 1917a: 31-32쪽). 음양에 대한 이치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조선 강점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학업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을 향해 “나는 체군이 있음으로 진주를 가진 듯이 기쁘고, 체군이 감으로 한양군(漢陽郡)에 강감찬을 보낸 듯이 민노라”고 했다. 그가 볼 때, 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미래

20) 장덕수(1915.5), 「의지의 악동」, 『학지광』 제5호, 40-46쪽. 강조점은 원문 그대로이다.

의 강감찬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계속해서 “크게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널리 구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미워도 부모형제이며, 이웃이다. 암담한 조선의 현실 속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요청하고, 경륜과 포부, 인격이 있어도 낮은 자세로 그들 속에 파고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업고 또한 외팔은 꺾여지기 수웁나니라. 미련하여도 내의 형제이오, 완고하여도 내의 부모(父老)이니,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존경하라. 저들을 지도하고 저들을 충간(忠諫)하라. 저들을 가라치고, 저들을 일으키라. 진토(塵土)안니에 백옥(白玉)이 잇고 운무(雲霧) 가운데에 신성(辰星)이 잇나니라. 물질(物質)이 아모리 조홀지라도 사람이 업스면 물질(物質)이 싱겨날 수 업나니, 제군(諸君)이 비록 알력산다, 시자의 경륜(經綸)이 잇슬지라도 바시맥, 스타언의 포부가 잇슬지라도 공자, 석가의 고상(高尚)한 인격(人格)이 잇슬지라도 구(求)치 안이하고 었지 못하면 도저히 혼자서 울도 못하고 날도 못한 것이니라. 그럼으로 미양자비(自卑)하고 백굴(百屈)해야 몸이 인도고가 되고 다리는 안진방이가 되도록 허리를 구무리고 무릅을 꿇며 목이 터지고 발이 달도록 부모(父老)의 계도 나아가고 또한 자질(子姪)도 불으라(김명식, 1917a: 32쪽).

그는 중국 한나라 유비의 삼고초려를 예로 들면서 크게 떨쳐 일어나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을 숙여야 하며, 크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충성’과 ‘용서’였다. 그는 공자의 ‘궁자후이박책어인’(躬自厚而薄責於人: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하기를 적게 한다)이라는 말을 거론하며, “안으로 자기를 엄중히 경계하고, 책망할 뿐 아니라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용서치 않으면 될 수 없으니 충성하고 용서하라.”고 말한다(김명식,

1917a: 33쪽). 충성하면 나오고 용서하면 쫓게 되니, 감격해서 나아오고 즐거워서 쫓으면 우수마발이라도 버릴 것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큰 재목이 있어도 기둥으로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의 현실을 간파하고, 그 속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지를 인식해 이성(理性)에만 경도되지 말고 실천적 행동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러분이여. 자는 자를 깨우고 안진 자를 세우라. 만일 갑분 일이 잇거든 얼굴로만 표히지 말고 큰 말로 표히며 분흔 일이 잇거든 다만 이마만 만져 부리지 말고 반다시 큰 말로 노(怒)하라(김명식, 1917a: 34쪽).

그는 톨스토이가 굳은 신앙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이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뜨거운 정성도 인격자에게 있지 않고, 또한 반드시 더욱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있으리라고 믿었다(김명식, 1917a: 33쪽). ‘안거연래’의 일관된 논지는 청년들이 암담한 조선사회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전진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IV. 일본 유학시기 현실관과 조직활동

1. 일본 유학시기 현실관

그는 『학지광』 제14호(1917. 11.)에서 자신의 전공분야라고 할 수 있는 ‘도덕’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도덕의 타락과 경제의 부진』이라는 논문을 썼다. 그는 이 논문에서 동서양의 고대사로부터 러시아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고 노동자·농민문제와 조선의 사회문제를 짚었다.

그는 논문의 서두에서 “도덕은 사람을 조성하고, 경제는 사람을 양생 하니 만일 우리에게 도덕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요, 또 경제가 없다면 잠시의 생명도 유지하지 못할 것은 현자(賢者)와 우자(愚者)를 불문하고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도덕과 경제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로 보았다(김명식, 1917b: 19쪽). 그는 20세기 황금만능시대에 이르게 된 연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나(支那)는 요순(堯舜)의 덕치사상(德治思想)이 2천년간을 지배하다가 전국시대에 지(至)하야 한비자가 법치주의를 창도함으로부터 상양(商鞅)의 각법(刻法), 진왕정(秦王政)의 혹형(酷刑), 왕안석(王安石)의 청묘(靑苗), 주원장(朱元璋)의 율전(律典) 등이 발생하였고 회랍은 12대신(大神)을 존송하는 신의정치(神意政治)(지나의 덕치와 상사함)가 기세기를 전래하다가 모세의 율법, 소론의 헌법, 풀나톤의 이상적 국가설이 출현하였고 근세에 지(至)하야는 먼저 영국에서 그 국민의 뜨거운 요구로 말미아마 막 그나칼타라 하는 헌장이 제정됨에 구주 각국도 또한 재래의 전제제도(專制制度)를 개혁치 안이치 못하야 맞침니 법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스며 또 경제계의 변천을 말할지라도 어렵시대, 목축시대, 농업시대, 상업시대, 공업시대의 황금만 아는 현금(現今) 황금시대에 지(至)하야도다(김명식, 1917b: 19-20쪽).

그는 도덕은 시대의 진보와는 반대로 퇴보하고 위축될 운명에 처했을 뿐 아니라 그 근저까지 동요하게 하는 과학만능주의, 법률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의 ‘3대 신사조’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김명식, 1917b: 20쪽).

그는 3대 신사조 가운데 과학만능주의는 자기의 분야가 아니라면서 언급을 자제하고, 법률만능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법률

만능주의는 “법률의 효능을 너무 극단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법률에서 나고, 법률에서 자라고, 법률에서 죽는다고 해 법률 이외에는 사회의 표준이 없고, 법률 이외에는 인류의 지침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로만 인류를 지도하며, 법률로만 사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법률은 도(道)를 표방함으로써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심을 격발함으로써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회에 대한 의무, 정의에 대한 굴복은 법률의 처벌을 두려워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그 양심이 뛰는 바 도덕적 자유의지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덕적 자유의지’야말로 법률만능주의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또 “법률을 시행하며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인중(人衆)이 그 법률의 행사에 복종하며 법률의 구속에 반항하지 않는 것은 그 법률이 중인(衆人)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도덕적 여론이 구체적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김명식, 1917b: 20-21쪽). 그는 중국 진시황의 예를 들어 법률이 “대중들의 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덕적 여론에 어긋나면 그 법률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질서를 유지한다 해도 반드시 훗날 소동, 분란을 만들어 마침내 충돌과 분열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그는 법률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법률이 법률로서 권위를 발휘하고, 권능을 행사하고, 효과를 표현하면 법률을 조성하는 여론, 법률을 인정하는 습관, 법률을 후원하는 도덕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김명식, 1917b: 21쪽).

그에게 20세기는 ‘물질문명이 극도에 달한 시대’였다. 동서대륙의 향

로가 개통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 와트(James Watt)의 증기기관, 풀턴(Robert Fulton)의 증기기선, 스티븐슨(Geroge Stevenson)의 증기기관차 등 각종 문명의 이기가 발명됨에 따라 거리가 단축되고 대공장·대상회가 곳곳에 설립돼 생산이 급증하고 편리해져 물질의 교역이 복잡하게 됐고, 자본의 형식을 대부분 황금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20세기는 황금시대라는 것이다. 그는 황금만 있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며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패배한 사람이 다시 이기게 되니 ‘유전(有錢)이면 가사귀(可使鬼)’라는 말이 오늘날의 현상을 정면으로 간파한 격언이라고 설명했다(김명식, 1917b: 21쪽).

지나(支那)의 노동자가 흔히 감당치 못할 노동을 강작(強作)해야 생명에 영향을 급(及)함도 황금의 짜문이며, 아편전(阿片戰), 일·청역(日淸役)에 연패(連敗)를 당함도 타(他)의 뇌(賂)를 수(受)하고 기(己)의 밀(密)을 고(告)한 황금의 짜문이요, 구미 각국에 부자와 빈자의 계급이 엄연히 분열되어 서로 충돌함도 황금의 짜문이라. 미국에서 일례(一例)를 취하건디 황금단(黃金團)의 세력은 심히 광대하여 시장의 금융을 농단할뿐만 아니라 정당, 정무까지 좌우하여 소상(小商), 소공인(小工人)의 존재를 압박하며, 발생을 방지함으로 부자는 부원이 더욱 확대하고 빈자는 궁핍이 더욱 자심할 뿐이니, 누가 능히 부자의 교사전형을 억제하며 빈자의 고통참담을 조위(弔慰)하리오.

그는 유럽의 계급문제가 ‘황금’으로 인해 부자와 빈자로 나뉘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 미국의 황금단(투기세력)이 광대해 시장 금융을 농단하고 정당·정무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존재를 압박하고 발생을 차단해 부자는 부원(富源)이 더욱 확대되고 빈자는 더욱 궁핍해진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개혁을 역설했다.

위정자(爲政者)는 부(富)를 제(制)하고 빈(貧)을 구(救)해야 가급적 사회의 화평(和平)을 도모하라고 사회정책상 수입세(收入稅)를 증가하며, 구빈원(救貧院)을 설립하고 또는 질병보험, 재해보험, 양로보험 등 강제보험제도(強制保險制度)를 실시해야 부(富)의 농단, 빈(貧)의 참화를 조절함에 노력하고 민간에서는 금일 경제조직이 부자로 하여금 발호하기에 적당함으로써 빈자(貧者)가 항상 비참한 지위에 함(陷)하는 것이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먼저 현사회의 경제조직을 타파하고 신조직(新組織)을 건설치 안이하면 도저히 약자의 존(存)을 보증할 수 없다 하여 혹 사회주의 혹 공산주의를 주장하여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자(者) - 불소(不少)한 지라 (김명식, 1917b: 22쪽).

빈자를 구제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사회의 경제조직을 타파하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 시기 이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식 또한 이 시기 신야동맹당의 소속원으로서, 이 글을 보면 그가 사회주의에 경도되는 이유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식의 도덕관은 “부자의 발호를 억제하고, 빈자의 참상을 구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에게 정의를 앞세운 도덕이 없으면 파괴를 이상으로 하는 빈자의 타협을 기대하지 못하며, 빈자에게 도덕이 없으면 사육만 탐해 포로적 부자로 하여금 자선심·의협심을 들춰 밝혀내지 못해 영원히 분쟁과 충돌이 쉬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부자의 자선심, 강자의 의협심, 빈자의 경애심, 약자의 타협심을

환기함은 정의를 앞세운 도덕이 아니면 언지 못할 것”이라며 “사회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도덕에 있고, 경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 또한 도덕에 있다”고 강조했다(김명식, 1917b: 22쪽). 그 도덕은 무엇인가. 이 시기 ‘도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상천은 ‘도덕’을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감각된 필요를 행하는 일”(이상천, 1915: 19쪽)이라고 정의한다.

김명식은 이처럼 도덕과 경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사회를 통찰했다. 조선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기 위해 범률만능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거론하며 현실 타파를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고래로 예의의 나라, 군자의 나라로 불렸는데 예의는 도덕을 행하는 것이고, 군자는 도덕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찬란했던 도덕은 그 흔적이 없어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 주인행세를 하듯이 오직 군세고 사나운 경제력이 사회를 좌우해 그나마 겨우 남아있는 생명도 아침저녁을 염려하게 됐으니 도덕, 사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도태될 뿐이다”라며 조선의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타락한 도덕’에 대해 상하·노소·존비의 구별이 없으며 조목조목 따져 들어갔다(김명식, 1917b: 23쪽).

부형(父兄)들은 자녀 교육을 부형된 자의 당연한 의무로 자각했지만, 이는 도덕적 공심(公心) 때문이 아니라 훗날 가문의 비천한 영예와 자신의 노년을 위해 보통학교나 간이농업학교를 졸업하면 면서기나 군직원·순사보·헌병보조원이 되기를 바라고, 중학교·전문학교를 졸업하면 보통문과시험과 관임관·문관운동을 지도하는 등 전제적·구속적으로 자녀들의 관계(官界) 진출만 지도한다고 부형들을 비판했다(김명식, 1917b: 23쪽).

이러한 그의 인식은 2·8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명인 김도연의 언급과

맥락을 같이 한다. 김도연은 “한국학생이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일본을 더 알게 될 것인즉,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대외 식민지 정책, 특히 대한침략에 대한 불법성들을 쉽사리 간취하게 되어 대일 투쟁을 전개하기에 용이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학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온 후에는 일제에 아부하여 무슨 고관이 되겠다거나 혹은 나 일신상의 어떠한 영달을 누리겠다는 등의 욕망은 추호도 가진 바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김도연, 1967: 53쪽; 오대륙, 2011).

청년들에 대해서는 자존과 멸시를 능사로 해 중학교나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옛날과 지금의 학문적 이론을 모두 이해하는 것처럼, 동서문명을 모두 관통하는 것처럼 스스로 존대해 집에서는 부형과 무조건 친구 충돌을 만들고, 이유 없는 이혼을 단행하며, 사회 관습도 무시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기업가에 대해서도 일반의 이목을 속이는 것이 일반 경향이고, 도덕에 대한 훈련이 없어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김명식, 1917b: 23-24쪽).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시가지나 해안 주변에 살던 소지주들은 타인의 의식적·무의식적 경쟁으로 직업을 빼앗기고, 수입이 끊기는 동시에 생필품 값이 날로 폭등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산이나 들로 거처를 옮겨 익숙하지 못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조선농촌의 현실을 고민했다. 대지주와 소지주 사이에는 지주를 대리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음의 주선으로 소작인의 이동과 변경을 좌우하고, 지주와 고리대금업자의 부도덕한 고리채로 소작인의 1년 생산을 모두 갖고 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촌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전전하게 된다고 분석한 그는 이로 인해 농촌의 쇠퇴와 피폐가 날로 심해지며, 노동자들은 동료간에 분쟁이 생긴다고 주장함으로써 대지주와 소지주간의 갈등과 노동자·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비판했다(김명식, 1917b: 24쪽).

조선의 농촌문제에 대한 일본 유학생들의 현실인식은 나경석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소작농민의 삶을 “농민들은 병들어 죽을 지경에야 비로소 전인(專人)하야 약(藥) 한첩(貼) 얻어 온다 합디다. … 말끝마다 죽지 못하여 산다 하니, 전도(前途)에 보이는 것은 궁핍(窮乏)과 간난(艱難)뿐이어든, 아무 소리 아니하고, 있는 것 만나 보기에 이상하오”라고 동정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너럴 스트라이크, 사보타지’ 이것이 그들의 자위자존하는 유일방법이요, 삶의 진리지마는 누가 ‘브 나로드, 브 나로드’하면서 붉은 기를 높이 들 사람이 있겠소?! 그 몇 사람이요!?”(K.S생, 1915: 25쪽)라고 하여 지식인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했다. 나경석은 또 “조선의 지주 대 소작인의 관계는 농민의 질박하고 순후(淳厚)한 풍기를 제거하면 서양의 도시사회문제와 동일한 성질을 대(帶)하야 지주는 하시(何時)던지 여하한 조리업은 이유로던지 소작권을 박탈할 권리가 잇서 생활의 불안정이 농촌 도처에 잇고, 소작료의 제도는 자유약정을 시인하였슴으로 지주는 여하한 경우에던지 지가(地價)의 1할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매년 좌식(坐食)하되 소작인의 수입은 흉년에는 말도 할 것 업고 풍년이 되어 토지의 생산력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하여도 소작료를 제공한 외에 수익은 실로 1년 노력의 대가의 반도 되지 못하니 제일, 농민의 자각이 생(生)하는 날에는 조선서 러시아의 현상을 또다시 볼지로다”(나경석, 1920: 55쪽)며 농촌의 현실을 돌아봤다. 나경석은 조선 농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날 조선에서 러시아혁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와세다대학 유학생 신석우도 “농업은 조선산업의 본위되는 자라. 맛당이 십분의 역(力)을 다하고 부절(不絶)의 노력을 다해 일(一)로는 전국의 경제를 윤회케 하며, 일(一)로는 개인의 생계를 풍부히 할 것이거늘, 금(今)에 사실은 차(此)와 대반(大反)하야 농업을 몸소 면려(勉勵)

하는 자! 해태부근(懈怠不勤)에 유(流)하고, 농업을 감독하고 경영하는 지위에 재(在)한 자본가나 지주된 자! 또한 등한(等閑)에 실(失)하여 전야(田野)에는 옥토비장(沃土肥庄)이 날노 타인의 손으로 귀(歸)하며 부락에는 빈핍곤궁이 또한 날노 격렬의 도를 심해야 가며”라며 농촌의 현실을 개탄했다(신석우, 1915: 25쪽).

변호사 사회에 대한 비판도 날카롭다.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가운데는 인민을 위해 권리를 주장·옹호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사와 농락으로 양민을 고무해 무사실, 무이유, 몰의리, 패도덕한 사건을 기소케 하고, 소송을 위임받은 뒤에는 동업자와 은밀히 이유의 정·부정, 증거의 명·불명은 옹호하지 않고 오직 수당의 많고 적음으로써 일부러 승패를 가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 때문에 친구와 친척 사이의 소송이 빈번하고, 부자·형제가 서로 법정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 예의방·군자국이라던 도덕의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느냐며, 진실로 개탄할 현상이라고 꾸짖었다(김명식, 1917b: 24-25쪽). 와세다대학 유학생 최팔용도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주의를 창도(唱導)할 수 업도다. 더욱 기왕이나 현재를 물론하고 우리 사회에난 진정한 개인이 업도다. 인민으로의 개인은 관헌의 노래에 불과하며, 자제로의 개인은 부형에게 무시되며, 년소의 개인은 년장에게 무시되며 빈자로의 개인은 부자에게 무시되며 상이는 양반에게 농민은 사(士)에게, 공상(工商)은 농민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처는 남편에게 남김 업고 유루(留淚)업시 고루고루 무시되고 말엇도다.”(塘南人, 1919: 8쪽)고 비판을 가했다. 그래서 김명식은 참새와 비둘기에 빗대 참된 도덕, 살아있는 도덕을 구하고 찾는 길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하라. 차지라. 내의 도덕을, 참된 도덕을, 산 도덕을. 참시집에는 참시

가 사는 도덕이 있고, 비둘기집에는 비둘기가 사는 도덕이 있나니 만일 참시의 집에 비둘기 도덕이 왔다 하면 그 참시는 잇을 참시, 살 참시가 되지 못할 것이니라(김명식, 1917b: 25쪽).

김명식은 사회가 밝고 도덕적인 문명사회의 사람들 가운데도 경제계가 호황이면 투기가가 붐기하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부패한 사회에 있어서는 신분과 지위와 처지에 대한 체면도 없고 여론도 없으니 무엇이나 이것을 할 사람, 하지 않을 사람의 구별이 없겠지만 좋은 때를 잃지 말라고 역설한다. 그는 이를 위해 근검절약하고 도덕적 생활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들이 비록 업서서 검약(儉約)을 하얏을지라도 검약(儉約) 그것은 미풍(美風)일 것이니 잊지도 못하고 언마 싱기지도 안이한 우리가 이 검약풍(儉約風)을 파(破)하지 말라. 만일 이 검약풍을 파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남의 싸움에 약간 어든 돈푼이 도리혀 우리의게는 비상군이 될 것이니(김명식, 1917b: 26쪽).

그는 이 논문의 말미에 “경제계로 나아가는 형제들아. 나아가려는 형제들아. 신분과 지위도 돌아보려니와 일확천금의 투기적 망동을 하지 말고, 비록 이익은 적고, 규모는 작을지라도 확실하고 영구한 사업을 경영하며 선택하라”며 도덕적 경영을 촉구했다(김명식, 1917b: 26쪽). 장덕준과 조선 경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며 유학생들에게 경제계로 진출하라고 촉구했던 김명식은 졸업 이후 조선으로 돌아와 『동아일보』 입사 직전까지 짧은 기간 직접 회사 경영에 뛰어들었다.

2. 일본 유학과 조직활동

그는 조선유학생학우회의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학우회는 1916년 1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지방분회를 해산하고 중앙통일제로 개편하여 새로운 체계를 갖췄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회장에는 신익희, 총무 윤현진, 평의원 의장 김효석, 평의원 백남훈·장덕수·김영수, 재정부장 노익근, 지육부장 차남진, 그리고 간사부장에 김명식이 선출됐다(박경식, 1975: 49쪽).²¹⁾ 그는 또 1916년 조선기독교청년회 간부로 활동했고,²²⁾ 1917년 10월 조선유학생학우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신병으로 귀향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학지광』 제15호, 1918: 82쪽).

1916년 4월 15일 일본 도쿄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학우회 주최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도쿄로 유학을 온 조선의 청년들에게 열변을 토했다.

산하 천리를 떨어져 타향에서 정겹게 우리 동포를 만났다는 것은 몹시 다행스럽고 기쁘기 그지 없다. 특히 우리들은 적국과도 같은 이 땅에 와서 이들 적인(敵人)으로부터 모든 지도를 받고 있는 몸이 됐으니 그 감개가 한층 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들어온 학생 제군들은 마땅히 정신을 굳게 해 장래 크게 발전하는 지사(志士)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박경식, 1975: 53쪽).

고된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조직활동을 통해 유학생들과 교류의

21) 『독립운동사』에는 1912년 10월 27일 조직된 조선유학생학우회의 창립초기 간부로 회장 신익희, 총무 윤현진, 평의원장 김효석, 재정부장 노익근, 지육부장 차남철, 간사부장 김명식, 평의원 김영수·백남훈·장덕수로 나와 있으나, 김명식의 일본 유학은 1915년에 이뤄졌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117-118쪽).

22) 『왜정시대인물사료』 제3권 (국사편찬위원회 검색).

폭을 넓혀 나갔다.

이 시기 유학생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은 비밀리에 이뤄졌다. 러시아혁명의 성공에 고무받은 일본의 조선 유학생들은 사회주의를 실현한 레닌과 러시아혁명을 받아들였다(류시현, 1999: 304쪽). 조선에 사회주의가 수입된 것은 1920년께였다. 『개벽』은 “1920년 이후 은근히 조선 사회에 세력을 가진 어떤 새로 들어온 사회주의가 1923년에 이르러서는 아주 깨끗하게 머리를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다(『개벽』 제43호, 1924: 130쪽).

익명의 필자가 『개벽』에 기고한 바에 따르면, 사회주의가 조선에 유입된 경로는 2가지로 유추된다. 하나는 동쪽, 즉 일본 유학생 가운데 신진 사상가들이 일본 사회주의 문서와 일어판 사상서적들을 통해 수입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쪽으로부터 수입됐다. 러시아령에 있던 이동휘 등이 1918년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을 조직한 것이 시초로서, 이들은 1920년 중국 상하이로 건너와 한인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공산당에 참가하고, 1921년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이 점차 조선 내 지역과 연락하면서 확산됐다.²³⁾

임경석은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 배경을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서, 1) 조선 경제를 자국의 재생산체계 순환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조선 공업의 수공업적 형태에서의 성장 저지, 2) 일제 독점자본의 식민지 시장으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농민과 도시 소상공업자들의 파산 위기, 3) 농민 가운데

23) 다른 하나는 북쪽으로부터 수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령에 있던 이동휘 등이 1918년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을 조직한 것이 시초로서, 이들은 1920년 중국 상하이로 건너와 한인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공산당에 참가하고, 1921년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이 점차 조선 내 지역과 연락하면서 확산됐다 (『개벽』 제43호, 1924: 3-4쪽).

70-80%를 차지하는 빈농층·노동자계급의 파업과 반일시위운동에 적극 참가, 4) 3·1운동에서 표출된 대중의 정치적 진출에 따른 독자적 정치의식의 단초 형성 등을 지적했다. 또 국제정세의 영향으로는 1917년 러시아혁명의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에 끼친 영향을 들고, 조선에서도 러시아혁명을 역사발전의 당연한 결과이며 조선독립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임경석, 2003: 40-48쪽).

김명식은 1916년 봄 아시아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한다는 목표(임경석, 2003: 7-8쪽)를 내건 비밀결사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의 결성에 참여했다.

김명식이 나보다 한 해 늦은게 그 사람하고 정노식씨는 그냥 일본에 조가 더 있었고, 그런게 정노식씨하고 거기 신아동맹당에, 윤현진이도 거기 그래. 저 순천 김양수도 신아동맹당 맹원이고, 이제 장덕수나 이봉수 그렇게 다 신아동맹당에 첫 번에 들어서, 저 대구 최익준이, 하삼연이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십여명 열댓명 들어가고, 중국 사람이 한 이십여명 허고, 대만 사람 허고 모다 한 사십여명 모와서 그렇게 만들었어(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7: 195쪽).

신아동맹당은 조선·중국·대만 3개국 청년들의 국제적 비밀결사였던 셈이었다. 김철수와 황개민 등 단체를 결성한 인물들이 귀국한 뒤에 새로운 당원인 백남규·양원모·홍진의·김도연·최팔용 등을 충원하면서 신아동맹당은 결사체로서 운영구조를 확립해 나갔다. 김명식은 1917년 여름 귀성 때 양원모와 함께 신아동맹당의 자금모집 활동을 벌였다.²⁴⁾ 신아동맹당은 당시 일본이 금서로 정한 서적을 상하이와 일본에

24) 『왜정시대인물사료』 제3권 (국사편찬위원회 검색).

서 밀반입해 배포하는 활동, 집회 연설, 각종 단체 조직, 자금 모집활동 등이다.

김명식은 신아동맹당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신아동맹당과 같은 단체로 보이는 동아동맹회의 해산 정보를 보면 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1917년 9월 30일 김명식(을호, 와세다대생), 김도연(을호, 게이오대생), 양원모(일명 종숙, 갑호, 메이지대학 졸업생), 홍진의(갑호, 메이지대학생) 등 ‘영수’(領袖)들이 간다(神田) 제1중화루(中華樓)에 모여 이 단체의 존폐문제에 대한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김도연과 양원모 등은 “간섭이 엄중하다고 해도 일제에 발각될 때까지 계속 애국심을 고취하지 않는다면 언제 국권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냐”며 ‘강경론’을 편 반면, 김명식, 전익지 등은 “일제의 엄밀한 감시 아래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 상에게도 영향을 끼쳐 끝내는 배일사상 포지자로서 그들의 생활 상에까지 압박을 받기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시기의 도래를 기다려 견실한 운동을 개시하자”는 ‘온건론’을 폈다. 회의 결과 김명식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²⁵⁾ 동아동맹회가 해산 결의를 한 날은 신아동맹당이 해산한 날이었다. 비밀결사의 해체와 존속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김명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산할 정도로 그가 신아동맹당에 끼친 영향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아동맹당의 해산을 결의한 1917년 9월 30일, 그는 조선유학생학우회 회장에 선출돼 이듬해 2월까지 활동한다. 그가 학우회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신아동맹당원들은 총무, 평의회 의장, 편집부장 등 대거 학우회 간부로 참여할 정도로 신아동맹당과 학우회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최선웅, 2006: 386-388쪽). 그러

25) ‘朝鮮人概況 第二 壹部 參考 送付’(秘號外, 대정 8년 3월 26일), ‘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の部-在歐米(七雜)’.

나 그는 신병으로 인해 1917년 12월부터 1918년 3월까지 귀향해 요양함으로써 학우회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신아동맹당원들은 주로 집회에서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한 연설이나 각종 단체 조직, 모금 및 반일 서적 배포 등의 활동을 통해 민족해방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고 대중의 열망을 모았다(최선웅, 2006: 386쪽).

비밀결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일본 제국주의 타도’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명식이 신아동맹당 해산을 주도한 것은 비밀결사운동이 탄압의 빌미가 돼 합법적 공간인 학우회마저 일제의 탄압으로 위태롭게 될 경우 유학생 사회 전반에 커다란 타격을 받아 재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최선웅, 2006: 388쪽).

이들 단체들이 ‘일본 제국주의 타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시기 김명식의 항일에 대한 의지와 그가 모색하는 항일운동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김명식의 일본 유학은 그의 사회인식의 형성과 조직활동가로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 어린 시절 제주에서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을 경험한 김명식은 서울 유학생생활에서 조선의 현실에 일찍 눈을 떴다. 제주에 유배온 김윤식이 김명식 집안과 교류한 것도 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1915년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입학한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의 사상적 흐름을 주도한 인사들과 만나는 계기가 됐으며, 조직활동

의 토대가 됐다.

그의 유학생생활과 그 이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주요 인물 가운데 추송 장덕준이 있었다. 설산 장덕수의 형이기도 한 장덕준을 통해 그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을 자각하게 됐다. 일본에서 목격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에게 충격적이었으며, 이는 그 뒤 그 자신의 말처럼 사회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조선의 사회현실에 뛰어들어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과학만능주의, 법률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의 3대 신사조를 거론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도덕의 향상과 경제의 진보를 병진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석이 일본 현지에 남아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활동에 주력한 것과는 달리, 유학생들에게 조선의 사회현실에 뛰어들라고 촉구해온 그는 졸업 뒤 조선으로 돌아와 회사를 설립하고 경제활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조직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일본 도쿄의 조선유학생학우회와 조선기독교청년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새로 유학 온 신입생들에게 연설을 하면서는 일본을 ‘적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선과 중국, 대만 등지의 유학생들과 만든 사회주의 계열의 비밀결사인 신아동맹당에 참여해 자금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 활동했다. 그의 유학시기 활동은 『동아일보』를 비롯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평생동안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조직활동을 하는 단초가 됐다.

2011년은 김명식이 탄생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의 뛰어난 문필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 그가 평생 열정을 바쳐 썼던 글들을 모은 문헌집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논문·기사

- K.S생(1915), 『저급의 생존감』, 『학지광』 제4호.
- 경기도등학교 동창회(1990), 『경기90년사』, 경기도등학교 동창회.
- 김도연(1967), 『나의 인생백서』, 강우출판사.
- 김명식(1917a), 『안거연래』, 『학지광』 제13호.
- 김명식(1917b), 『도덕의 타락과 경제의 부진』, 『학지광』 제14호.
- 김명식(1936), 『목우군을 곱함』, 『민중시보』.
- 김명식(1938a), 『나의 회상기, 대판 8년간 방랑기』, 『삼천리』 제10권 제1호.
- 김명식(1938b), 『추송의 영(靈)』, 『삼천리』 제10권 제11호.
- 김명식(1940), 『씨제도의 창설과 선만일여』, 『삼천리』 제12권 제3호.
- 김문주(2004), 『농은문집』, 북제주문화원.
- 김병택(2010), 『제주예술의 사회사』 상, 보고서.
- 김윤식 저(2010), 『속음청사』,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 나경석(1920), 『세계사조와 조선농촌』, 『공제』 제1호, 조선노동공제회.
- 당남인(1919), 『우리 사회의 난파』, 『학지광』 제17호.
- 류시현(1999), 『1910-1920년대 일본유학 출신 지식인의 국제정세 및 일본인식』, 『한국사학보』 제7호, 고려사학회.
- 류시현(1997), 『나경석의 ‘생산증식’론과 물산장려운동』, 『역사문제연구』 제2호.
- 박경식 편(1975), 『재일조선인 관계자료 집성』 1권, 일본: 삼일서방.
- 박노자(2005), 『잊혀진 공산주의자의 향기』, 『한겨레21』, 2005. 10. 18.
- 박일형(1932), 『논전과 김명식씨』, 『삼천리』 제8호.
- 박종린(2000), 『김윤식 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제38호.
- 박종린(1999), 『한국의 사회주의1 - 꺼지지 않은 불꽃, 송산 김명식』, 『진보평론』 제2호.
- 서영인(2008), 『일제말기 전향자들의 시국인식과 문화론 - 김명식을 중심으로』,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제32집.

- 신석우(1915), 『귀로에 임하야』, 『학지광』 제6호.
임경석(2003),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장덕수(1915), 『의지의 약동』, 『학지광』 제5호.
정진석(1995), 『인물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1권, 제주도.
제주도(1996),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최선웅(2006), 『1910년대 제일유학생단체 신아동맹당의 반일운동과 근대적 구상』,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추송생(1915), 『오인의 이상』, 『학지광』 제6호.
허호준(1993), 『시대를 앞서 산 언론인 김명식』, 『제주저널』 1호, 한국기자협회 제주도지부.
홍종욱(2000), 『중일전쟁기(1937-1941)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그 논리』,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홍종욱(2009), 『1930年代にける植民地 朝鮮人の思想的摸索-金明植の現實認識と轉向を中心に』, 『朝鮮史研究論文集』 No.47, 東京: 録蔭書房.

2. 자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7), 『독립운동사』 제9권, 독립유공자기금운용위원회.
『왜정시대인물사료』 제3권(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검색).
『朝鮮人概況 第二 壹部 參考 送付』(秘號外, 대정 8년 3월 26일), 『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の部-在歐米(七雜)』

3. 신문

- 『대한매일신보』, 『독립』, 『동아일보』, 『제주신보』, 『조선중앙일보』, 『황성신문』.

4. 잡지·기관지

- 『개벽』, 『대한협회회보』, 『삼천리』, 『학지광』.

5. 인터뷰

- 황정이 인터뷰. 1993. 9. 13.

Abstract

Social Recognition and Activities of Songsan Kim Myeong-Sik
during studying in Japan, 1915-1918

Huh, Ho-Joon*

Kim Myeong-Sik was the first journalist of Jeju island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one of the important theorists to introduce the socialism theory to Joseon Society. As the organizer and social critics, he was on the main stage among the fierce and serious paper wars.

He entered the department of Political and Economics, Waseda University in Tokyo, Japan in 1915. During his childhood, He had been experienced the *Ban Seong Chil* Uprising and *Lee Jae Soo* Uprising. His studying in Japan gave him opportunities to meet the Koreans who led the ideological stream in Joseon Society and to put into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His meeting with Chusong Jang Deok-Joon was greatly influenced to his life. He realized the reality of the Korean laborers who had worked in Japan by Jang Deok-Joon. By these social recognition and the analyses of Joseon society, his papers on Joseon Students Friendship Association's organ, *Hakjikwang*, have still appropriate until now.

He urged graduates in Japan to jump into the realities of Joseon society and have same paces to Koreans, and learn from them. He had already remarked three new thinking trends of the scientism, legalism and mammon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He bitterly criticized these

* Reseacher, The Jeju 4·3 Institute.

trends and demanded the improvement of morality and economy.

He also engaged in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He became the secretary general and the chair person of Joseon Students Friendship Association in Japan [*Joseon Yoohaksaeng Hakoohwe*], and official of Joseon Youth Christian Association [*Joseon Gidok Cheongnyeonhwe*].

He joined the New Asia Alliance Group [*SinaDongmaengdang*] which was a secret organization of early socialism and collected the funds. He also joined the East Asia Alliance Meeting [*DongaDomaengHwe*].

By the experience of his studying in Japan, he could actively able to write a lot of articles and papers in Dongailbo Newspaper and other journals and joined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This year is 120th anniversaries of his birth. It is regrettable that his collection of the papers is not published yet.

Key Words

Kim Myeong-Sik, Jang Deok-Joon, *Hakjikkwang*, *Joseon Yoohaksaeng Hakoohoe*, *Sina Dongmaengdang*

교신 : 허호준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제주도청 기자실
(E-mail: hj8100@hanmail.net 전화: 064-710-3701)

논문투고일 2011. 06. 13.

심사완료일 2011. 07. 27.

계재확정일 2011. 08. 17.